

알고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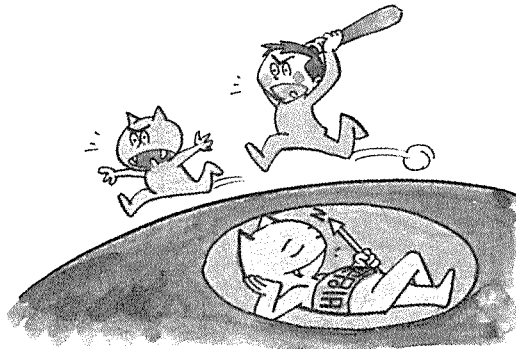
지상연재 11회

연성하감

□외견상 매독과 구별하기 어려워

이 병은 연성하감균(듀크레이간균)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궤양으로서,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 붓게 됩니다. 감염후 2-3일이 지나면 여드름 같은 작은 부스럼이 성기에 생기나 곧 곱아서 궤양으

로 됩니다. 차츰 커져서 콩알만 해지면서 이 궤양은 불규칙하게 깊이 파이며, 많은 고름이 나오고 몹시 아프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개가 생기지만 고름 속에는 연성하감균이 많으므로 이로 인해, 그 수가 많아지고 서로 융합되기도 합니다. 남자의 음경, 여자의 음순 등에 주로 생기며 드물게는 손가락이나 입술에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의견상 매독과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매독의 궤양은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데 비해 이것은 연약하고 통증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혈청검사로서도 매독과 구별이 됩니다. 이병은 비교적 급성 경과를 밟으나 2-7주 정도로 궤양은 완치되지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생물질에 의해 1주 정도의 치료로 완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병을 앓는 동안에 그 주위(주로 서혜부)의 임파선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생기면서 붓게 되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화농된 임파선을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서혜임파육아종

□제 4 성병이라고도

이 병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에 이어 성병으로서는 네번째로 발견되었다 하여

제 4 성병이라고도 합니다. 병원균은 바 이러스의 일종이며, 이 병의 원산지는 열대 지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환자가 많지 않으며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된지 2-3주 후에 작은 물집이 국부에 생겨서 궤양을 만들거나, 또는 요도구가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나, 이런증상은 가볍게 오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아 본인도 모르게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10일쯤 지나면 증상은 없어지나, 감염후 3-4주 지나게 되면 갑자기 서혜부에 있는 임파선이 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딱딱하던 것이 차츰 부드러워지면서 피부로 터져나와 누공(癩孔)을 만들고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누공이 여기저기 생겼다가 흉한 상처를 남기고 치유가 되는데, 경과를 만성으로 진행되며 수개월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병은 항생제로서 쉽게 치료가 됩니다.

